



솔내음 도서관



도서관 소식

• 2019학년도 다독상 시상 기준(하반기 7.1~11.30)

- 1-2학년 대출권수 50권 이상 독서록 20페이지상
- 3-4학년 대출권수 40권 이상 독서록 20페이지상
- 5-6학년 대출권수 30권 이상 독서록 20페이지상

• 3권 대출 및 연체 사면 쿠폰 받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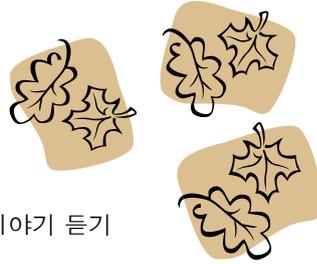
목요일 아침(8시 40분)에 도서관에서 읽어주는 그림 동화 이야기 듣기
도서관의 독서록 양식으로 독서록 2편 쓰기

• 예쁜 파일 받는 방법

도서관의 독서록 양식으로 독서록 5편 쓰기

• 매주 목요일 아침 시간에 1-2학년은 교실에서 어린이 도서 연구회 어머님들께서 3-6(희망자)는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 9월 독후활동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송우초등학교도서관소식지

19-5호 2019.9.16

발행처: 송우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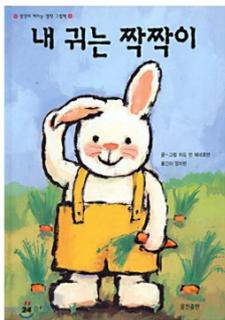
발행인: 백수만

편집인: 조윤경

도서관에서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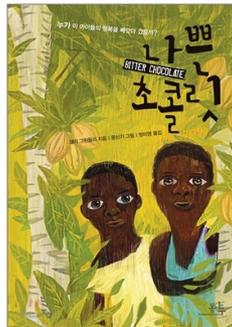
- ☺ 말소리는 소곤소곤
- ☺ 발걸음은 사뿐사뿐
- ☺ 오락은 ~~no

마음이 머무는 책갈피



제목: 내 귀는 짹짹
출판사:웅진
지은이: 기도 반 게네흐턴

리키를 따라해 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까르르 까르르 소리내어 웃어댔죠. 배꼽이 빠지도록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그리고 처음으로 리키도, 친구들도 모두 똑같아졌답니다. 친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던 토끼가 친구들과 화해하는 사랑스런 이야기 입니다.



제목:나쁜 초콜릿
출판사:봄나무
지은이: 샬리 그린들리

아프리카에 사는 두 아이 파스칼과 코조의 삶을 주축으로, 초콜릿에 숨은 진실을 들려줍니다. 세계 최대 카카오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의 아동 인권 실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며,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계속되는 내전이 기니에 살던 한 어린이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사연을 절절하게 전합니다. 출처: 예스24

도서관 이용시간

☺ 오전8:30-오후4:30
월요일~ 금요일 이용가능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도서관 자료대출 안내

- ☺ 학생 : 1인 2권
- ☺ 대출기간: 7일 (1회 연장가능)
- ☺ 연장신청 : 직접방문

다대출자

독후활동공모전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친구들 (7월 1일 - 8월 31일)

정확한 성명은 도서관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위	성명	학년 반	대출권수
1	김*은	4-1	41
2	유*상	6-3	36
3	이*례	3-2	30
4	이*현	4-2	27
5	최*빈	4-2	26
6	권*경	5-1	24
7	김*우	1-1	22
8	국*영	4-2	17
9	유*량	1-1	16
10	박*빈	1-2	15

재미있게 읽은 책!

글쓰기, 그림그리기, 책만들기 등으로
숨씨를 뽐내봐요.

가. 공모기간 : 2019년 9월 2일(월) ~ 9월 27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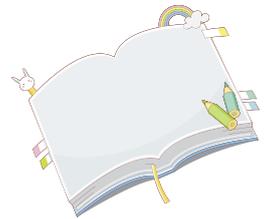
나. 공모 주제 및 형식 : 자유

다. 접수처 : 솔내음 도서관

라. 시상: 학년군별 최우수(1), 우수(1), 장려(1)

마. 1인 1명역에 한하여 참여

바. 표절, 대리작인 경우 입상 취소



가치관 형성을 돕는 책 읽기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좋아 보일 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혹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강하다. 문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등장하는 인물의 개성이 강할 때, 독특할 때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제시하는 인물의 상을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위인전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책 가운데는 위인전이 으뜸으로 꼽힌다.

위인전은 한 시대를 살다 간 한 인물의 삶과 업적을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읽어온 위인전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되었듯이 위인 예정론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여지가 더 많다. 즉 위인전에서 다루어지는 인물들은 왕, 정치가, 장군,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성되는 위인이 아니라 태어나는 위인이기 때문이다. 몇몇 대형출판사가 출판하는 전집에는 위인 단골손님이 있는데 이순신, 김유신, 세종대왕, 한석봉, 신사임당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야 한다는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 역사에 남긴 업적이나 인물됨이 부족함이 없더라도 시간적으로 짧게는 몇 백년 길게는 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우주를 넘나드는 첨단과학 시대에 수 백년전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유명한 위인들도 알고 보면 남보다 특별 나고 훌륭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이 참다운 위인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남다른 노력과 의지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뚜렷한 업적을 남긴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강백향의 책 읽어주는 선생님> <http://www.mymeil.pe.kr/index.shtml>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 르네 데카르트